

대왕암

울산광역시 동구 소식지
2026 가을호 **VOL.177**

댑싸리와 팜파스그라스가 피어난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사진 **김옥경** 명예사진기자

CONTENT

04 **민선 9기 10대 주요 추진사업**

08 **화재·수해 복구 이모저모**

10 **찾아가 봤습니다 <슬도수산>**

12 **사진으로 보는 동구**

14 **동구의회 소식**

16 **동구, 이야기 속으로 <동구 다방열전2>**

18 **동구의 맛을 찾아서 <버거머거>**

20 **급식 조리사의 건강한 집밥 메뉴**
<얼큰 꽃게탕과 차돌박이 숙주볶음>

22 **동구, 사람이야기 <HD건설기계 이웃사랑회>**

24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당케 베이커리>**

26 **동구 청년뉴스 <'복부대공' 동구에 납시다>**

28 **청소년 이야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30 **2026년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전국대회 개최

31 **동구 인권뉴스**

32 **동구지역 전시 소개**

34 **동구 도서관 뉴스**

36 **유익한 생활정보**

38 **복지관 소식**

발행·편집인 울산 동구청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통권 177호
디자인·인쇄 디자인스토리지 미림

슬도의 가을 하늘

김영숙

슬도의 하늘은
누군가 물감으로 곱게 칠해 놓은듯
가을 하늘의 빛깔은 선명합니다.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는 듯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솜씨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하늘은 늘 새로운 기다림을 선물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작은 행복을 피워 냅니다.

김영숙 시인
2023년 계간문예 신인상 수필
울산문인 협회 회원, 에세이 울산 회원, 동구슬도문학회 사무국장

사진 **김옥경** 명예 사진기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천기옥입니다

민선 10대 동구청장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방어진활어센터 화재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부모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청년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돕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소중한 휴식 공간이자 지역 관광의 성장동력이 되어, 사람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힘들 때 더 든든하게 주민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새로운 동구’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동구를 만들어 갑니다

01 동구 거점형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추진

동구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거점형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활용해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 ·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02 원스톱 육아 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

동구는 교육·돌봄·복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육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울산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동구청 홈페이지 등 행정 인프라를 개편·확대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3 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동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 진학 · 진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목초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임기 내 1:1 맞춤형 학습·진학·진로 상담, 입시설명회,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04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실 운영 추진

동구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한 진로교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7년부터 기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조선·해양산업 현장 견학과 특화 체험을 제공하고, 현직자와 퇴직 명장 등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역량을 높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이쌍식** 명예 사진기자

일상이 알차고 편안한 복지 동구를 만들어 갑니다

05 생애통합형 평생학습센터 조성 추진

동구는 꽃바위문화관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생애통합형 평생학습센터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연장과 교육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공간으로 활용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06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안부 시스템 구축

동구는 독거노인과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확대한다.

AI 안부전화와 스마트 플러그, 전력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AI 말동무 인형 등 다양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촘촘하게 살필 계획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인 안부 확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07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사업 운영 추진

동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을 건강관리 거점으로 활용해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신체활동·비만 예방 프로그램, 금연·절주·영양·구강 건강·치매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과 마음안심 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는 생활 밀착형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시 뛰는 경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08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조기완공 및 스마트화 지원

동구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의 조기 완공과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과 선박·발전시스템, 금속 가공 및 운송 장비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포지구의 조기 조성을 통해 신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동구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09 울산동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추진

동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권역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 · 개편해 소상공인 민원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 마케팅 · 경영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 역량강화 교육, 골목상권 행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김옥경** 명예 사진기자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여유로운 동구를 만들어 갑니다

10 바다 전망 데크·해안 산책로 확대

동구는 어풍대와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바다 전망 데크와 해안 산책로를 확대한다.

해안길을 따라 바다전망대와 포켓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보행환경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동구의 대표적인 해안 관광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11 동구 종주길(The Blue Way) 정비 추진

동구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슬도와 대왕암을 거쳐 주전까지 이어지는 해안 종주길(The Blue Way)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존 해안길의 노면과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와 몽돌해변 등에 전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벤치와 '인생샷 스팟'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길의 보행환경과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동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표 해안관광 코스로 육성할 예정이다.

12 명품 바람길 및 자전거도로 확충 추진

동구는 방어진항에서 일산지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미연결 구간을 정비한다.

대왕암 회전교차로에서 일산지까지 약 1.6㎞ 구간에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확충되면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어센터 화재…기록적인 폭우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안전을 지킵니다









방어진활어센터 화재, 밤새워 비상대응 상인 지원나서

동구는 8월 22일 밤 방어진활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 피해 수습과 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화재는 8월 22일 오후 10시 43분경 발생해 오후 11시 43분 초진, 23일 0시 10분 완진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체 62개 점포 가운데 29개소가 전소되고 33개소가 반소됐다.

동구는 화재 직후인 8월 23일 0시 20분 구청장 주재 현장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대응에 착수했으며, 오전에는 화재수습 대책 TF팀을 구성해 피해 상인 면담과 현장 출입통제,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8월 26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보험 신고 등 행정 지원, 폐수산물 수거 · 처리 및 소독, 경영안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상인들의 회복을 지원했다.

9월 2일에는 HD현대중공업·HD일렉트릭·HD건설기계가 방어진항 화재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의 재난 구호성금을 전달했으며, 9월 4일에는 동구청과 현대중공업,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폐기물 5톤을 수거했다. 한국무브넥스는 9월 16일 지역사회 재해 구호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동구는 앞으로 긴급 생계비와 성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지원하고 안전 점검과 시설 복구를 추진해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에 휴일 비상근무, 현장 복구와 안전조치

동구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동구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총 102.5㎜(시간당 최대 99㎜)의 비가 내리면서 동구는 오후 3시 30분 호우주의보 발효와 함께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3시 50분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비상 2단계로 즉시 전환하고 직원 1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직원들은 침수 현장에 출동해 긴급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도로가 파손된 방어진우체국 앞 북진5길 약 40m 구간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차량 통행을 통제해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동구는 집중호우 다음날 대부분의 현장을 복구했으며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지원했다.

동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9월부터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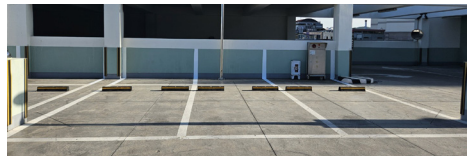
울산 동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있다.

동구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1만 2천명에게 발송했다.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현장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과 경제 능력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생활 여건에 맞는 납부방법을 안내해 세금 체납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다.

문의 : 동구청 세무2과 052-209-3245(지방세 관련) 052-209-3240(세외수입 관련)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 수직 주차선 시범 도입





울산 동구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시범 도입했다.
수직 주차선은 주차면 뒤쪽 벽면에 수직으로 도색하는 주차 보조선으로,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주차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바닥 주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던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 통합 1주년, 나만의 기념 우표첩 발행

동울산우체국

HD현대중공업 통합 1주년, 울산 동구의 자부심을 우표에 담았습니다. 정주영 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표 선박을 담은 특별한 기념 우표첩입니다. 우리 동구의 역사와 조선 산업의 자부심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장을 바랍니다.

예약접수 : 2026.10.15.(목) ~ 11.5.(목)
판매가격 : 우표첩 1권 35,000원 내외(가격 미정)
예약문의 : 동울산우체국 영업과 ☏ 052-250-0111~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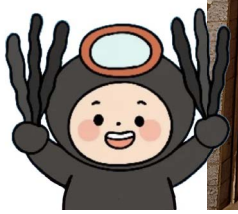


슬도수산, 횟집 아닙니다

동구해녀가 딴 돌미역귀 디저트 맛집입니다

최선자 명예기자





동구 해녀가 채취한 돌미역 직접 구입
동구의 특산물이 이색 디저트로 재탄생
수익금 나누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푸른 동해바다 위에 테왁을 띄워 바닷속에서 물질하는 해녀의 망사리에는 해산물이 가득하다. 미역 따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해녀들이 딴 돌미역에서 흔히 '미역귀 다리, 미역대가리, 미역 꼭지'로 알려진 미역귀는 대부분 말려서 짭조름한 간식으로 하나씩 떼서 먹거나 생으로 오도독오도독 먹는다. 그리고 장아찌나 무침, 튀각 등으로 조리해서 먹는다.

그런데 이런 돌미역귀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디저트로 만든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다.

'슬도수산'은 울산 동구 바다에서 해녀들이 직접 건져 올린 자연산 돌미역귀를 활용해 만든 로컬 F&B 브랜드이다. 돌미시니, 돌미낭시에 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해지는 디저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동구 방어동 슬도수산 매장 앞에는 '횟집인가 궁금해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을 열었다'는 재미있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슬도수산은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귀를 구입해 가루로 만들고, 수많은 실험과 실습, 품평을 통해 돌미시니, 돌미낭시에, 블랙 식혜 등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에는 모두 자연산 돌미역귀가 들어가 색이 까맣다. 이름도 모양도 낯선 블랙식혜는 한 모금 마셔보니 달지 않으면서도 맛있다. 저당이어서 건강하게 맛있다는 설명이다.

브라운버터 향의 '돌미낭시에' 빵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 모양이 완전히 동그랗지도 않다. 몽돌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방어진 동구 가자미를 닮았다. 돌미낭시에를 예쁘게 쌓아올린 돌미낭시에 케이크도 있다.

'돌미시니'는 이탈리아 전통 브레드스틱인 '그리시니(grissini)'에서 착안한 것으로, 바삭한 식감에 바닷바람의 풍미를 가미한 슬도수산의 시그니처 간식이다. 나풀거리며 자라는 미역의 어린 잎처럼 생긴 모양인데 자꾸 손이 간다. 슬도수산은 돌미낭시에와 블랙식혜로 행사 답례품을 만들고, 전복밥 도시락 등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자연산 돌미역귀를 쌀 누룩 소금과 저온 발효한 돌미누룩 소금장과 돌미시니 용으로 개발한 소스도 판매하고 있다.

슬도수산의 뿌리는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여기서 협동조합 구성원이 동구의 해녀들이 채취하는 돌미역귀를 활용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동구지역 해녀에게서 지역 특산물을 직접 구입해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더가득을 설립해 슬도수산이라는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었다. 현재도 ㈜더가득은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며 동구를 알리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체 기반 로컬관광 지원사업인 '관광두레'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조선해양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도 참여해 슬도수산의 제품을 알리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작해 참신한 제품을 선보이며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고 사회 공헌을 실천한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슬도수산 김태은 대표는 "제품이나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동구의 대표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으로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슬도수산은 매년 어르신 식사 제공과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지역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명절 전 꾸러미 제공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월봉6길 41 나동 102호(010-9319-7852)
https://www.instagram.com/thefull_153



돌미낭시에



돌미낭시에 케이크



맞춤형 케이터링







1. HD현대 그룹은 9월 2일 동구청을 방문해 최헌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정훈 일렉트릭 상무, 박진규 건설기계 상무가 방어진활어센터 화재 피해상인과 수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달라며 재난 구호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2. HD현대일렉트릭(대표 김영기)이 8월 21일 동구청을 찾아 사회공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3. HD현대중공업은 8월 25일 책놀이터 북적북적에서 이준엽 전무와 천기옥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공공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 지원금 3천만원 전달식을 했다.



4.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8월 18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동구보건소에 전달했다.



5. HD현대중공업이 어린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1호 어린이 승강장이 녹수초등학교에 마련되어 9월 10일 준공식이 열렸다.



6.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이 올해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에서 완료되어 9월 2일 준공식이 열렸다.



7. 울산 동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방어진활어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9월 4일 HD현대중공업,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환경정비를 시행했다.



8.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여름 쿨키트를 7월 31일 1,000가구에 전달했다. 동구여성단체 회원들이 냉감 이불 등 물품 11종을 직접 포장했다.



9. 동울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치규)는 9월 8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나눠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쌀 33포를 전달했다.



10.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도진)는 9월 11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재난구호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11. 울산 동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이병태)는 9월 11일 동구청을 방문해 화재 피해를 입은 방어진활어센터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12. 윤만석 방어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9월 9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13. 동구 일산새마을금고(이사장 박학천)는 8월 9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곰국 500개를 화정사랑나눔 냉장고에 기부했다.



14. 동구새마을회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조기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15. 동구는 8월 26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 및 제236회 임시회





동구의회는 7월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첫 의사일정인 제235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이수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 신임 의장은 다선거구(남목1·2·3동) 재선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강동효 의원이 당선됐다. 강 신임 부의장은 나선거구(일산·전하1·2동) 재선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유봉선 의원이 선출됐다. 유 신임 운영위원장은 가선거구(방어·화정·대송동) 재선의원이다.

선출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어 동구의회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또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기관이 발의한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동구 D-0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도 심의했다.

유봉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버스 노선 개선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영 의장


강동효 부의장


유봉선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윤 의원


서성태 의원


사덕민 의원


전혜화 의원

PHOTO NEWS

의정활동 포토뉴스



제9대 동구의회 개원식

동구의회는 7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동구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동구의회 청렴 명함 제작

동구의회는 7월 21일 의장실에서 청렴 명함 제작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2026 동구의회 청렴 교육

동구의회는 7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동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제1호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23일 책놀이터 북적북적에서 개최된 제1호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나이트런 일산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25일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나이트런 일산에 참석했다.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해상 불꽃쇼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26일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해상 불꽃쇼에 참석했다.

동구 다방열전2 「추억의 약속다방」



정은영 수필가 新 다방열전 저자, 울산다방문화연구소 운영

정은영
수필가. 르포작가, 울산다방문화연구소 운영
전) 울산예총 부회장 / 현) 불교문인협회 회장
저서: 『병영성을 걷다』『다방열전1, 2, 3』등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골목마다 다양한 커피숍이 즐비하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옛날의 '다방'이 있다. 특히나 동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다방이 많다. 키오스크와 셀프서비스가 도입되기 전, 넓적한 쟁반에 보리차와 함께 가져다주던 다방커피는 우리 생활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 <新 다방열전>의 저자이자 울산다방문화연구소를 운영하는 정은영 수필가가 동구의 다방을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시작하면서

방어진은 아직도 다방이 많다. 방어진항을 따라 10여 곳 이상이 영업하고 있다. 다방이 사라져가는 시대지만 방어진은 여전히 다방 전성시대다. 다만 항구 들머리 약속다방이 수년 전에 문을 닫은 것이 아쉽다. 방어진 청구 조선 직원들이 즐겨 찾았고 쉬는 날은 고깃배를 타는 선원들이 찾아들었던 추억의 약속다방을 소개한다.

울산 약속다방

20년 전, 다방열전을 시작하면서 울산에도 약속다방이 있을까, 궁금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방어진 시외버스 정류장 근방에 있음을 확인했다. 약속다방을 찾았던 것은 다방 이름치고 약속보다 좋은 이름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이 다방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연히 연인들 만남도 다방이었다. 모든 만남은 약속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약속된 날 정해진 시간, 다방에 가면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름의 대명사가 약속이다.

동해안의 약속다방들

울산에 약속다방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다. 최근 동해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몇 군데 약속다방을 확인했다. 경북 울진 죽변파출소 옆 약속다방, 동해시 묵호항 뱃머리에도 약속다방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쉬운 것은 방어진 약속다방이 문을 닫은 사실이다.

방어진 다방들은 뱃사람들 쉼터였다

약속다방을 찾았던 때가 15~16년 전이다.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다. 울산에서 동쪽 바다로 향한 끝, 대왕암과 울기등대가 있어서 유명했던 방어진 선창으로 갔다. 날이 추워서 도로 곳곳이 얼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풀린다고 했지만, 햇살이 퍼지기 전은 춥다.

이 나라 조선산업의 중심, 현대중공업 정문을 지나 방어진 시외버스 종점까지 갔다. 눈에 익은 길이다. 방어진항 주차장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려 선창 주변을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깔끔히 정비된 거리를 따라 다방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시내에서는 1980년대나 볼 수 있던 풍경이다. 방어진항은 동해안 일대 멸치잡이로 유명한 중요 어항이다. 추워서 그런지 방어진항은 조용하다. 배도 몇 척이 부두에 묶여 있다. 방어진항은 언제봐도 아름답다. 슬도에서 부터 오밀조밀한 해안선을 따라오면 어시장이 있고 옛날 회를 썰어 팔았던 방파제 입구까지 이어진 거리에 청사초롱이 걸린 듯 10여 곳 다방들이 영업하고 있다.

낱이삭 줍듯 두어 시간 헤매야 간신히 한곳 찾아내는 시내 다방들은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 문을 연다. 어떤 다방은 한낮이 넘어야 문을 여는 곳도 있다. 대신 방어진 다방들은 오전 8시, 9시면 문을 연다. 방어진을 갈 때는 약속다방 때문이었는데 가서 보니 보석 같은 다방들이 촘촘하다.



방어진항에서는 카페가 맥을 추지 못한다.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 멸치잡이 배 선원들이 카페보다는 다방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도 같다. 어선을 타는 선원들이 출항을 앞두고, 또는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들어와서 쉬는 곳이 다방이다.

약속다방

오전 9시가 넘어서였다. 구릿빛 얼굴의 선원이 문을 열고 나타나자 종업원이 아는 척을 했다. 종업원은 대꾸도 없는 손님에게 커피 두 잔을 들고 간다. 탁자에 잔을 내려놓고 둘 다 말없이 창밖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신다. 모든 일이 행동으로 시작돼서 행동으로 끝이 나는 시간이다.

약속다방은 방어진항이 한눈에 내다뵈는 3층 건물의 2층에 있었다. 현재는 중국식 음식점이 입주한 그 자리다. 필자도 선창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 창가로 가서 바다를 봤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듬성듬성 항구를 채웠다. 파도가 칠 때마다 오징어잡이 배 전구들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약속다방에서 뵈는 어판장은 과거 바다였다. 지금은 메운 덕분에 부두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선착장 곳곳에는 가자미를 그물에 말리는 광경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종업원이 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고 한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커피 두 잔을 들고 온다. 그리고 웃었다. 사투리가 억세었다. 중국 연변 말투 같다. 아니면 하얼빈 말인 것 같기도 했다. 고향을 물었더니 하얼빈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곳이란다. 이국 땅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 분이 대단하다.

10여 년 전, 방어진 다방들은 커피 배달이 주요 영업 수단이었다. 어선까지도 배달 갔던 시절이 있었다. 다방 입구 간판마다 배달 전문이라고 적혀있었다. 약속다방도 입구에 배달 전문 간판을 세웠다.



방어진은 다방 천국

방어진항을 따라 걸었다. 곳곳이 다방이다. 차라리 이 거리를 다방 특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전국에서 이만큼 다방이 살아남은 곳은 없다. 항구마다 다방이 많다고는 하지만 방어진은 단연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방마다 점심때가 지나자, 중년의 남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자리가 손님들로 차 버렸다. 이상한 일이다.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방어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가수 이필원이 부른 '약속'의 노랫말은 추억 속 그 시절의 온기를 느끼게 한다. 입안에서 웅얼거렸는데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 나갔다.

그 언젠가 만나자던/
너와 나의 약속/ 약속 약속 너와 나의 약속/
잊지 말고 살자 하던 우리들의 약속/
하늘처럼 푸르르게 살자 하던 약속/
약속 약속 너와 나의 약속/
모든 슬픔 잊자 하던 우리들의 약속(중략)

이 노래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노래 수집가 주철환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50년 전에도 음악 동네에는 '약속'이 있었다. 통기타를 멘 청년의 이름은 이필원이었다. 한국의 조앤 바에즈로 불렸던 박인희와 함께 '뚜아에모아'(너와 나)라는 이름으로 '약속'(1970)을 불렀다. 노래 속에는 네 번의 약속이 등장한다. 이 네 번의 약속, 우리는 살면서 어떤 약속을 지켰고 또 어떤 약속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다. 노래가 의미심장하다.

나가면서

현실이 팍팍해질수록 추억이 그립다. 그 추억 속에 다방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약속다방이 문을 닫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것이 무슨 큰 역사를 만든 것 같다. 약속다방, 담배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수제버거, 마음을 훔치다

'버거머거(BURGER MUGGER)'

글 사진 **이상길 칼럼니스트**

울산 동구 서부동 토박이. 울산제일일보 기자이자 영화·드라마 파워 블로거.
내돈내산 내맘대로 맛집 탐방을 하며 깐깐한 입맛으로 평가한 음식을 감칠맛 나는 글로 선보이고 있다.

필자가 '버거머거(BURGER MUGGER)'를 알게 된 건 대략 5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버거머거는 일산해수욕장 근처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평소 햄버거에 진심이어서 울산에 있는 웬만한 수제버거집은 거의 다 순회를 했었고, 자주 가는 일산해수욕장에 새로 생긴 만큼 단번에 찾게 됐다. 당시 웨스턴풍의 깔끔한 실내인테리어도 좋았지만 메뉴가 굉장히 독특했다.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시그니처 메뉴의 명칭이 특이했는데 이름하여 '강도 버거'. 영어를 뗀 지가 오래돼서 머거(MUGGER)의 뜻이 '강도'인 줄 몰랐던 탓에 순간 속으로 '무슨 햄버거 이름에 강도가 붙지?' 싶더라. 다만 너무 맛있어서 혹시나 마음을 훔쳐 간다는 뜻으로 '강도 버거'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처음으로 맛본 강도 버거는 진짜 내 마음을 훔쳐가버렸다.

사실 햄버거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긴 하다. 기본적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진 햄버거 번(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와 치즈, 베이컨, 계란, 양상추(채소), 소스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만큼 크게 색다를 건 없다. 다만 수제버거는 패티가 두텁고 재료도 더욱 많이 들어가 비싼 만큼 일반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는 맛이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요리 방식과 재료가 비슷한 탓에 그런 수제버거들 사이에서도 차별화는 그리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 일반 프랜차이즈 버거와 수제버거의 맛은 확연히 다르지만 수제버거들 사이에선 맛이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햄버거 마니아인 필자가 울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다 돌아다니며 수제버거를 먹어본 결과 그렇더라. 큰 차이는 없다고.

헌데 강도 버거는 달랐다. 이름만큼. 바로 킥(강렬한 한방)이 있거든. 그러니까 강도 버거에는 묵직하게 튀긴 양파가 들어가는데 이게 맛의 중심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어 다른 재료들이 느끼해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바삭함이 느끼함을 잡아준다. 요즘 추세가 햄버거에 가끔 해시브라운(감자를 잘게 다져 기름에 튀긴 것)을 넣기도 하는데 강도 버거에 들어가는 양파 튀김은 그런 해시브라운과는 바삭함의 질이 다르다. 거기다 육즙 팡팡 호주산 청정우로 구운 소고기 패티와 치즈, 베이컨, 할라피뇨의 조합에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가 스며들어 한마디로 궁극의 맛을 선사한다.





최남열(52)씨가 버거머거(BURGER MUGGER)를 동구 방어동에 처음 차린 건 2014년. 7년 정도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리 두기를 위해 공간이 훨씬 넓은 일산해수욕장 건물로 옮기게 됐다. 그리고 2년 정도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중 입소문을 들은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측이 입점을 권유해 백화점에서 1년 반 정도 영업을 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방어동으로 옮겨 꽃바위로 227에 다시 개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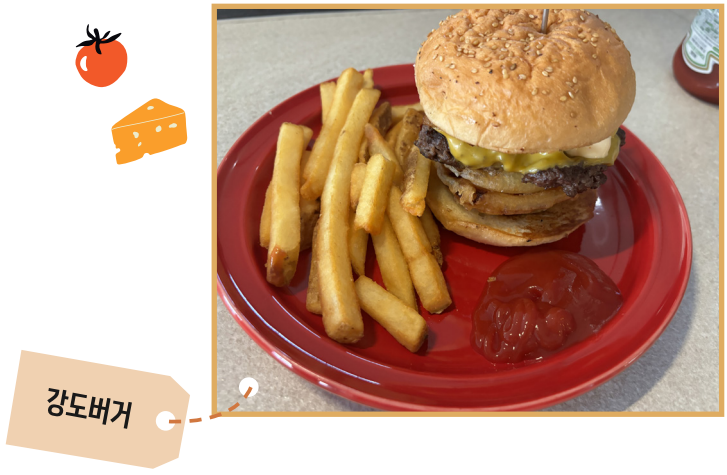
동구 주민인 만큼 버거머거의 현대백화점 입점은 개인적으로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수제버거 맛집으로서 언젠가 칼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구를 떠났으니. 허나 버거머거의 동구 이탈을 아쉬워하는 이들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햄버거가 사실상 주식(主食)인 동구지역 외국인들에게는 더했을 터. 실제로 이곳은 갈 때마다 외국인들로 붐볐는데 다시 동구로 돌아온 뒤 얼마 전 취재차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최남열 사장으로부터 뜻밖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다. 바로 강도 버거의 탄생 배경이었는데 13년 전 방어동에 처음 가게를 열고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친구들(외국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 **미국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한 친구가 자기 고향 캘리포니아 해안을 떠올릴 수 있는 햄버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옵셔(offshore:앞바다의) 버거'다.** 시원하면서 푸근한 맛의 아보카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 옵셔 버거는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가게의 시그니처 버거로 등극했다.

그렇게 2년 동안 옵셔 버거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어느 날, 평소 해장도 햄버거로 해온 최씨가 술 먹은 다음 날이면 자기만 몰래 혼자 만들어 먹는 버거가 있었는데 그걸 보던 그 외국인 친구가 자기도 먹고 싶다며 달라고 해서 조금 줬더니 "이걸 왜 안 파냐"고 난리를 친 것.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강도 버거'다. 그리고 지금은 강도 버거가 옵셔 버거를 제치고 메인이 됐다.

하지만 이날 최씨로부터 들은 가장 흥미진진했던 이야기는 정작 따로 있었다. 바로 최씨의 원래 전공이 일식이었다는 것. 실제로 그는 세계 3대 요리학원 가운데 하나인 일본 오사카 '츠지요리학원'에서 6년을 배우며 일식 요리 자격증을 딴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명 일식집에서 6년간 쉐프로 있었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한 지인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소살리토로 자기를 데리고 가 햄버거를 같이 먹게 됐는데 감히 '인생 버거'라고 할 정도로 그 맛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최씨는 직장생활을 1년 정도 하다 안 맞아 고향인 울산 동구에서 지금의 버거머거를 차리게 됐다고 한다.

버거머거(BURGER MUGGER)는 명실상부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수제버거집이다. 수제버거집이 13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사례는 없거든. 그만큼 맛 하나로 승부해 왔다는 이야기. 해서 최씨도 그날 인터뷰에서 "미국 소살리토에서 먹었던 인생 버거보다 요즘은 내가 만든 햄버거가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나저나 글을 쓰다 보니 햄버거가 확 땡기네. 좋아, 오늘 저녁은 버거머거?





급식실에도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글·사진 | **임유정**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조리실무사
진행 | **이승희** 명예기자





"잘 먹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 한 켠이 뭉클해지는 참 따뜻한 말입니다.
학생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보람으로 돌아오고 바쁜 내일을 이겨 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 차 조리실무사 임유정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이일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일자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급식실의 작업 환경은 참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몇백 명의 점심 식사를 실수 없이 만들어 내야 했고 아울러 청결과 위생도 챙겨야 하는 분주한 날들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보람과 재미가 있는 급식실에서 벌써 7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업무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씩 배우고 동료들과 맞춰가면서 급식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누군가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학고등학교 급식실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고등학교는 대량의 음식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 많은 양의 음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리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협업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님, 조리실무사님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한 한 끼가 될수 있게 위생적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조리합니다.

그리고 동료간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식실이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에서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의 작은 수고가 학생들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실에도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봄나물로 입맛을 돋우고, 여름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보양식으로 힘을 북돋아 줍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제철 음식으로 계절의 맛을 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선물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많은 계절과 기쁨, 그리고 힘든 순간까지 함께할 소중한 급식실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에게는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을, 동료들에게는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정성을 담아,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급식실로 향합니다.

얼큰꽃게탕

가을 꽃게는 살이 단단하고 꽉 차며 단맛이 강해 탕으로 먹기 좋습니다.
얼큰꽃게탕은 꽃게의 단백질 미네랄과 해산물의 오메가3, 타우린 등 영양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체력 회복,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재료 : 꽃게 2마리, 무, 애호박, 양파, 대파, 고추, 미나리

양념 :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된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미림 1큰술, 참치액젓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적당량, 물

만드는 법

❶ 꽃게를 깨끗하게 손질 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한다.
❷ 냄비에 물(또는 육수)을 붓고 무를 먼저 넣어 끓인다.
❸ 무가 투명해지면 양념을 넣고 풀어준 뒤 꽃게와 야채를 넣는다.
❹ 꽃게가 붉게 익으면 액젓으로 간을 맞추고 거품은 걷어낸다.
❺ 마지막에 대파, 고추, 미나리를 넣고 마무리한다. 기호에 따라 쑥갓이나 미나리를 넣어도 된다.

차돌박이 숙주볶음

차돌박이 숙주볶음은 단백질 철분이 풍부한 차돌박이와 비타민C.K 식이섬유가 많은 숙주를 함께 섭취해 피로 회복과 소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완성된 차돌숙주볶음은 따끈한 밥 위에 넉넉하게 올려 차돌박이 숙주덮밥으로 즐겨도 정말 맛있습니다.



재료 : 차돌박이 300g, 숙주 300g, 양파, 대파, 청양고추, 편마늘, 식용유 약간

양념 : 간장 3큰술, 맛술 1큰술, 설탕 2/3큰술, 다진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통깨, 굴소스 2/3큰술

만드는 법

❶ 숙주는 씻은 후 물기를 충분히 뺀다.
❷ 차돌박이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한 장씩 풀어 양념에 밑간을 한다.
❸ 달군 팬에 식용유 1숟가락을 두르고 편마늘, 양파를 살짝 볶는다.
❹ 밑간을 해 둔 차돌박이를 넣고 센불에서 빠르게 볶는다.
❺ 차돌박이의 겉면이 살짝 익으면, 숙주와 굴 소스를 넣은 뒤 센불에서 1~2분 정도만 빠르게 볶는다.
❻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센불에서 짧게 한번더 볶은 뒤 통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작은 나눔이 큰 울림으로"

30년을 이어온 'HD건설기계 이웃사랑회'

천애란 명예기자







1996년 첫발을 내디딘 HD건설기계 이웃사랑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처음에는 사원 중심의 작은 봉사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김장 봉사와 집수리, 환경정화,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동구의 든든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웃사랑회 이창식 회장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해 온 회원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봉사를 통해 오히려 회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따뜻한 마음을 얻었다고 전했다.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은 48명이다. 예전부터 함께해 온 회원들과 새롭게 참여한 회원들이 어우러져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0년을 이어온 가장 큰 원동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한 번의 봉사로 끝내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직접 돕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오늘의 '이웃사랑회'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활동인 김장 봉사는 2000년부터 이어져 올해까지 26회에 이른다. 김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국산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양념도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정성을 더한다. 그래서인지 이웃사랑회가 담근 김치는 맛도 일품이다. 집수리 봉사를 마친 뒤 어르신들이 말끔하게 달라진 집을 바라보며 "정말 고맙다",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면 힘든 순간도 잊게 된다고 한다.

방파제와 일산해수욕장 환경정화, 농촌 일손 돕기 역시 회원들에게 소중한 추억이다. 농가의 일손을 도우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고, 힘든 일을 함께하면서 회원들 사이의 정과 유대감도 깊어졌다. 일일 호프를 열어 마련한 금액을 소년·소녀 가정에 지원했던 활동도 회원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만나면서는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지속적인 돌봄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물품 하나보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는 어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웃사랑회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려고 노력해 왔다.

HD건설기계 이웃사랑회는 앞으로 나눔을 더 넓고 깊게 이어갈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복지관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아동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방 리모델링 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춘기를 지나며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성장과 마음까지 살피는 새로운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맞이 행사와 환경정화, 농촌 일손 돕기처럼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활동도 다시 활성화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30년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선배 회원들이 만들어 온 나눔의 전통을 후배들이 이어받아 또 다른 30년을 만들어 간다면 이웃사랑회가 동구에서 더욱 든든한 봉사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동구 주민들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김장 한 번, 집수리 한 번, 환경정화 한 번처럼 함께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오늘의 30주년을 만들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회원들에게도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사랑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D건설기계 이웃사랑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더욱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집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장판과 벽지 등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봉사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데 비용과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이나 원활한 처리 체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나눔이 모여 30년의 큰 울림이 되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도 동구 곳곳에 이어져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케(Danke) 베이커리

이정은 명예기자

이상준 사장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베이커리 셰프로의 삶을 시작했고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고 있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빵집이 첫 일터였고, 화암추 등대가 있는 남진 바닷가의 경치에 반해 동구에서 둥지를 튼 지 28년이 지났다. 동구 내 빵집에서 월급쟁이 베이커리 셰프로 근무하다 2002년 5월 일산동에 당케(Danke) 베이커리를 시작하면서 오너 셰프가 되었다.

거창한 꿈을 꾸며 시작한 건 아니었다. 그저 빵이 좋았고 2000년에 태어난 첫딸이 좋아할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예쁘고 아기자기한 쿠키, 미니 케이크, 딸의 입에 쏙 들어갈 베이비슈 등을 많이 만들었다.



아빠가 만든 빵과 쿠키를 어린 딸이 맛있게 먹는 것.

24년 전의 이상준 사장이 가졌던 따뜻하고 소박한 꿈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고, 2015년엔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에 입점하게 되었다.



윈도우베이커리로선 꽤 의미 있는 일로 그가 만든 빵의 품질을 인정받고 당케 베이커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8년간 동구 일산동과 현대백화점 동구점. 두 곳에서 당케 베이커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예쁘고 맛있는 빵을 파는 집으로 소문이 났다.

호황의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 시국이 되자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백화점과 일산동에 있었던 당케 베이커리를 모두 정리하고 2022년 9월 지금의 위치인 동울산시장 부근에 다시 문을 열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 가지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28년간, 여전히 매일 365일의 새벽을 열며 효모 발효를 시작하고, 밀가루를 반죽하며, 오븐의 온도를 살핀다. 백화점 입점 시보다 절감한 고정 지출비를 좋은 재료에 쏟으며 50여 가지의 빵과 쿠키를 만든다.

학창 시절 일산동에 있는 당케 베이커리를 찾았던 학생들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그때 먹은 쉘부르 케이크와 크레이 존 슈(콘샐러드)를 찾고, 여전히 20년이 된 단골들은 이상준 사장의 마음속 대표 메뉴인 소금빵과 마늘 바게트를 담는다.

28년 동안 재료와 공정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던 시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일평생 만든 예쁜 빵, 맛난 빵이 제대로 오롯이 평가받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는 감사하다.

2014년, 울산 동구의 상징인 대왕암을 모티브로 한 '대왕암 빵'을 개발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친근한 맛을 지닌 미니 팥빵으로 동구 내 윈도우베이커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구 특산품이란다. 울산 동구 내 빵집 이야기에서 공동 개발한 이 빵은 당케 베이커리에서만 파는 빵은 아니지만 윈도우베이커리의 발전을 위해 많이 판매되길 바란다.

상호 Danke 는 '감사합니다'란 뜻의 독일말이다.
이상준 사장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함을 담아 누군가의 아침을 따듯하게 하고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건네기 위해 늘 그래왔든 여전히 새벽을 연다.

예쁜 빵, 맛난 빵을 굽기 위해.







※ 윈도우베이커리 : 일반적으로 동네 빵집을 의미하며, 매장에서 고객이 유리창을 통해 빵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형태의 빵집을 말합니다.

‘복부대공’ 동구에 납시다

이진규 명예기자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홍보의 수단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다. 그중 몇몇은 대중매체에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소위 먹히는 트렌드와 튀는 캐릭터를 내세워 지역을 알릴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특산물 판촉에까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울산 동구에도 명물이 탄생할 기운이 보인다.



기록적 더위가 식을 줄 몰랐던 여름. 건장한 덩치에 금목걸이체인을 하고는 새침데기처럼 뛰어가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복부대공’이 그 기운의 주인공이다. 이름처럼 친근한 복부에 웨이브까지 출렁이며 동구의 명소와 축제 현장에 나타나는 복부대공은 노란색 꽃잎을 쓰고 슬도의 해바라기가 되는가 하면, 일산해수욕장 비치짐에서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춤을 춘다.

두 눈을 번쩍이며 타이어를 들어서 넘기다가 조선해양축제에서는 소녀처럼 즐거워하는 캐릭터.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주인공은 바로 울산 동구청 미디어홍보팀의 최동건 주무관이다.

울산 동구청이 최근 힘을 쏟고 있는 SNS 홍보의 대표 얼굴로, 울산 동구청이 운영하는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의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있다. 최동건 주무관은 일산해수욕장 비치짐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의 커버댄스를 추며 SNS 데뷔를 했다. ‘복부대공’이라는 별명은 에이티즈 인기 멤버의 별명인 ‘북부대공’을 패러디한 것으로, 같은 팀에 근무하는 본 지의 편집장이 우연히 아이디어를 냈고 최동건 주무관이 흔쾌히 수락해서 울산 동구청 복부대공이 탄생하게 됐다. 기획과 실행이 물 흐르듯 됐다는 것은 우연이 필연이 된 격이다. 복부대공의 데뷔 영상은 신선한 화제를 일으키며 인스타그램 조회수 1만을 돌파했다.

복부대공 최동건 주무관은 데뷔 영상에서 입었던 흰 런닝과 금목걸이를 유니폼 삼아, 슬도 해바라기 홍보 영상, 울산조선해양축제 홍보 영상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SNS에서 울산 동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공무원 신분에 연기를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윗옷을 벗어 던지고 엉뚱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부담이 없었냐는 물음에 “재미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라며 금목걸이 소품도 자비로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부터 떠오른다. 다른 이미지가 없다.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섭다. 그럼에도 '복부대공'을 연기하기 위해 타 지역의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고민한 티가 역력하다.



요즘 공무원은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쩌면 자신의 이미지와 상관없는 연기 때문에 오해의 시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뭐든 해야 한다는 일념이 엿보였다.

"아무런 제약 없이 웃기면 끝인 영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 방향과도 맞아야 하구요. 지금까지는 지역 명소나 이벤트 중심이었지만 제도를 알리거나 구청의 여러 과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 영상도 만들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캐릭터의 변신도 필요하구요.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에도 런닝만 입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가 진행 되는 내내 의욕에 찬 눈빛과 웃음기 가득한 얼굴은 '복부대공'이라기 보다 동구에서 성장하고 공무원이 된 청년의 진정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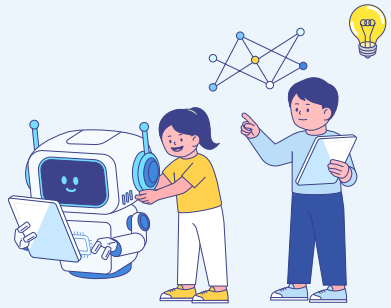
1분 남짓 되는 영상에는 예쁜 효과도 없고 화려한 카메라 무빙도 안 보인다. 흰색 런닝을 쫄쫄이처럼 입은 '복부대공'과 자막 몇 글자가 전부다. 누가 봐도 휴대폰 한 대로 찍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숏폼(short form)영상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하는 시대에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 싶지만 '저예산 B급'은커녕 '무예산 C급' 감성이 됐다는 담당자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멍석이 제대로 깔리면 1만 구독자를 넘어 10만, 100만 구독자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복부대공의 노력이 그런 결실의 뿌리가 되어 복부대성공이 되리라 믿는다.

울산 동구 SNS에 가입해 주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인스타그램	@ulsan_donggu_official
페이스북	@usdonggu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usdonggu
유튜브	@ulsandonggutv

국가가 인증한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

박혜진 명예기자



울산 동구에서 만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학교 밖에서도 계속된다. 환경과 과학기술을 탐구하고, 목공·드론·디지털 창작 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경험은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울산 동구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 청소년 시설인 남목청소년센터와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가 있다. 두 센터에서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증을 받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 지도자의 전문성, 활동 장소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다. 단순히 재미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적합한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배치되는지,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인증 프로그램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 또, 환경·문화예술·과학기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증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선택하며 도전하는 활동의 주인공이 되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배움이다.

남목청소년센터와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가 마련한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꿈과 관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나무로 여는 상상공방



내 손안의 3D 세상



반려동물 간식 연구소



AI 모빌리티 탐험대

20년간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청소년은 누군가 정해준 답을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완성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성장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험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활동이다. 한 번의 체험이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작은 도전이 진로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울산 동구의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마음껏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남목청소년센터]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참가대상
제13694호	놀면서 배우는 전통문화	전통문화 체험(한복입기, 전통음식만들기, 전통놀이 등 체험)	초등연령 청소년
제13652호	사운드 LAB	AI로 만드는 나만의 음악	초등연령 청소년
제13651호	반려동물 간식 연구소- 요리부터 직업까지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고 관련 직업 교육 진행	초등연령 청소년
제13650호	AI 모빌리티 탐험대	코딩을 통해 알티노 주행하기	초·중등연령 청소년
제D0098호	지키자 구하자 지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상생활 교육 등	초등연령 청소년
제13223호	내 손안의 3D 세상	3D펜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 만들기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3222호	나무로 여는 상상공방	다양한 목공 소품 제작	초등연령 청소년
제13221호	UAM 드론 조종 전문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학습하여 드론 조종해보기	초·중등연령 청소년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참가대상
제10888호	청소년! 1인 크리에이터의 꿈을 송출하다 'Youth Studio'	자신만의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1인 크리에이터 체험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1199호	21C 3.1운동의 주인공은 나!	3.1운동 역사 배우기, 독립신문 제작 활동	중등연령 청소년
제12036호	Green쿡! Youth쿡!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저탄소 요리 이해 교육 및 저탄소 요리 만들기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2094호	나라 사랑 태극기 디폼교실	우리나라 국경일 역사를 배우고 디폼블럭을 이용한 애국심 함양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2130호	바다 환경 지킴이 [海(해)오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분리 배출을 배우고, 재활용품으로 환경 작품을 제작·전시하는 활동	중등연령 청소년
제12528호	예뻐지는데 이유라도?	자신의 퍼스널컬러와 체형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3144호	청소년 안전체험활동 R.Youth119	안전사고 대처법과 응급처치를 익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제12601호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을 위한 AI 윤리 (중학교)	AI 기술과 윤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활동	중등연령 청소년
제13341호	Teen's 디지털드로잉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감정 캐릭터와 3컷 웹툰을 제작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는 활동	초등연령 청소년

2026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전국대회 성황리에 개최

유병기 명예기자





울산광역시 동구 댄스스포츠연맹(회장 이윤)이 주관한 '2026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전국대회'가 지난 7월 26일 동구 전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200개 팀의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천기옥 동구청장을 비롯해 김태선 국회의원, 이수영 동구의회 의장, 시·구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가 선수들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음악과 리듬에 맞춰 펼쳐지는 다양한 동작과 화려한 춤사위에 관중들도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대회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윤 울산동구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은 "깨끗하고 쾌적하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산 동구에서 전국 규모의 댄스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최근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댄스스포츠의 장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댄스스포츠를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미진 울산동구 댄스스포츠연맹 사무국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관중들의 응원과 호응도 매우 뜨거웠다"며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댄스스포츠는 즐거운 음악과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건강과 활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어 최근에는 건강한 여가 활동이자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댄스스포츠를 통해 신체활동은 물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어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동구 댄스스포츠연맹은 지역 주민과 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댄스스포츠의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선수권 전국대회'가 오는 11월 15일 동구 전하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의 댄스스포츠 선수와 동호인들이 다시 한번 동구에 모여 열띤 경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가 된 혐오, 혐오표현은 인권이 아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지난 8월 26일, 한 방송사의 시사 유튜브에서 웃음이 터졌다. 정당 약칭을 두고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라는 말이 나왔고 출연자들이 함께 낄낄거렸다.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을 끌어온 말이었다. 제작진은 뒤늦게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같은 달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쏟아진 포럼을 개최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다.

지난 6월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향해 5·18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일이 채 정리되기도 전이었다. 돌이켜보면 배재고 사태는 어느 날 돌발적으로 터진 일이 아니었다. 순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었다. 5월 18일에 맞춰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로 상품을 판 기업이 있었고, 사법살인을 웃음거리로 삼은 방송이 있었고, 국회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개별 행위자가 아니라 형식이다. 이 장면들에서 혐오는 이벤트와 응원, 예능과 축하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혐오는 더 이상 주장으로 유통되지 않는다. 밈으로, 유행어로, 놀이로 소비된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놀이는 혐오의 가장 효율적인 운반 수단이다. 그 형식은 혐오에게 두 겹의 방패를 준다. 첫째, 책임을 지운다. 문제를 제기하면 "장난인데 예민하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둘째, 진입 장벽을 없앤다. 역사관도 확신도 필요 없다. 따라 웃고 따라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놀이가 된 혐오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유튜브와 숏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훨씬 자주 접하고, 그것을 또래 사이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쓴다. 아이들은 혐오를 믿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의 죽음을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어울리기 위해 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 교사의 89.8%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민원 부담 탓에 이를 수업에서 다루기를 주저한다. 배울 곳은 닫혀 있고 익힐 곳은 열려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한 겹의 방패를 더 얹는다. 혐오를 '논란'이라고 부르는 관행이다. 지난 30여 년간 제목에 '논란'이 들어간 언론 기사를 분석한 연구는, 정책 관련 논란 기사가 줄어드는 동안 사회 면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논란으로 규정하는 기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논란'이라고 부르는 순간 문제의 초점이 혐오 표현 자체가 아니라 찬반 대립으로 옮겨간다고 지적한다.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툰다는 뜻이다. 이 말이 붙는 순간 혐오 발언은 '한쪽의 주장'이 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다른 쪽의 주장'이 된다. 가해와 피해가 있던 자리에 찬성과 반대가 들어선다. 놀이로 가벼워진 혐오가 논란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견의 지위를 얻은 혐오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요구한다. 앞서 그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인권을 부수는 자유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조부터 27조까지 권리를 열거한 뒤, 마지막 세 조항에서 그 권리들이 어떤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는지 밝힌다. 제28조는 선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한 유일한 터전인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지며,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제30조는 이 선언의 어떤 조항도 여기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할 권리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결론은 하나다.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자유는 애초에 자유의 목록에 없다. 혐오 표현은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동등한 시민의 자격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에 맞서는 일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자유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닥을 지키는 일이다.

놀이가 된 혐오를 처벌로 뒤쫓는 대응은 늘 뒤늦고, 가장 약한 자리에서 멈춘다. 필요한 것은 기준이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법으로 정의하고, 인권 교육을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법이 혐오를 정의해 주어야 언론도, 학교도, 기업도, 정치권도 그것을 '논란'이라 부르며 판단을 미룰 수 없게 된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사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한, 혐오는 계속 가장 재미있는 놀이의 얼굴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엔 뭐 볼까?

동구지역 가을 전시 프로그램 안내



바다와 문화가 함께하는 슬도아트

울산 동구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한 슬도아트는 2024년 1월 문을 연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기존 소리체험관을 재구조화하여 탄생한 슬도아트에서는 시기별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감각적인 기획 전시와 대관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6년 슬도아트 기획초대전
최혜원 개인전 《에헤야자: 도오와, 도오와, 거더러줘라》
기간: 2026. 9. 5.(토) ~ 11. 1.(일)
장소: 슬도아트 '아', '트' 갤러리

《에헤야자: 도오와, 도오와, 거더러줘라》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방어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이다. 지점토와 천으로 만든 작고 다양한 조형물들은 각기 독립된 모습을 지니면서도 일정한 장소와 감각을 공유하며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작가는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밝게 조성된 '아' 갤러리에서는 슬도와 방어진항 일대에서 채집한 조개껍데기, 나뭇가지, 조약돌 등의 자연물을 작가의 조형물과 함께 배치하여 현재 방어진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반면 어둡게 연출된 '트' 갤러리는 새로운 감각으로 타자를 마주하는 직관의 공간이다. 관람객은 어둠에 눈이 서서히 적응하는 '암순응'의 과정을 경험하며, 조형 작품 및 영상, 음원, 책자 등의 채록 작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어업 전진기지로 활용된 방어진의 역사와 멸치잡이 공동 조업에 담긴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만나게 된다.

전시는 방어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축과 서로 다른 개체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사라져 가는 장소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추상적인 정보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현실과 다시 접촉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시 기간 중에는 클레이와 조개껍데기로 자신만의 바다 마을을 만드는 연계 체험 프로그램 〈너와 나의 바다 마을〉이 운영된다. 또한 9월 26일과 27일에는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과거 방어진의 멸치후리 조업에서 불린 노동요를 관람객과 함께 재현하는 참여형 퍼포먼스 〈방어진쑥밭후리소리〉가 마련되어, 공동체적 감각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2026 슬도아트 기획초대전 포스터

문의

슬도아트

☎ 052-234-1033
울산 동구 성끝길 103
10:00~18:00
입장마감 17:30,
월요일 및 명절 당일 휴관

청년의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울산동구청년센터 마을기록관

울산동구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소통·문화공간이다. 취업·창업 지원부터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까지 청년의 삶과 가까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그중 청년작가전시지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청년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관람객과 작품으로 소통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6년 울산동구청년센터 마을기록관 10월 전시
김보라 개인전 〈꿈틀꿈틀〉
기간: 2026. 10. 6.(화) ~ 10. 30.(금)
장소: 울산동구청년센터 1층 마을기록관

삶은 선택할 수 있는 사건과 선택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지난 삶을 소화시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몇의 경험들은 찌꺼기처럼 소화되지 않은 채 체기처럼 남아 있다. 작가는 그러한, 소화되지 않고 내 몸에 떠도는 체기를 그림 그리는 행위로써 해소한다. 손으로 뱉어낸 이미지 형식의 토사물들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을 되새기고 나를 마주한다. 계속 지니고 있기도, 뱉어내기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태어난 이미지는 저의 흔적이기도 하며 트라우마를 가진 당신, 우리의 흔적이기도 하다.

전시 작품 속의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전시장을 누비고 있는 형상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불안을 내뱉고, 대면하며, 해소하는 이 몸부림치는 듯한 과정, 이 두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의 불안이 만들어낸 낯선 세계, 낯선 도피처를 소개하며 현실을 살아가며 불안을 겪는 관람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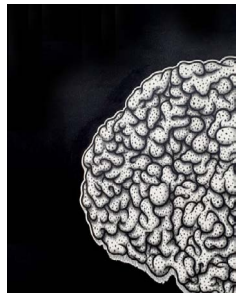
Portal, 120cm, acrylic & Oil marker on canvas & motor, 2021



방에서 벌레가 나왔다 시리즈, 가변크기, Oil marker on canvas, 2019 ~



해충_01/ 116.8x91/ marker on canvas / 2021



해충_01/ 116.8x91/ marker on canvas / 2024

2026년 울산동구청년센터 마을기록관 12월 전시
김희정, 박정은, 금연옥, 윤지현, 김다름 작가 단체전 〈곁길 : 잠시 다른 길〉
기간: 2026. 12. 2.(수) ~ 12. 26.(토)

• 히즈하우즈(김희정)의 곁길

누군가는 유리공예를 '곁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에게는 수많은 선택 끝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길. 안정적인 길(전직 은행원) 대신 창작자의 삶을 선택했고, 공방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과 연결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 밀도아트(박정은)의 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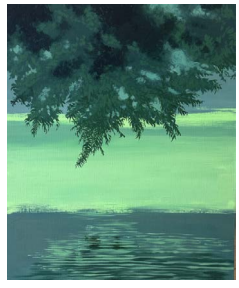
밀도아트에서 '그림'은 단순한 행위나 직업을 넘어, 삶을 기록하고 세상과 온기를 나누는 연결 고리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취미로 시작된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업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친 삶을 버텨내게 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 밀도아트 수강생들의 곁길

회사원, 주부, 학생,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방향을 틀어 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선물이 된 이야기를 담았다.



무제, 캔버스, 아크릴물감, 60.5X73



무제, 캔버스, 아크릴물감, 53X72.5

문의

울산동구청년센터

052-209-3485~7
울산 동구 명덕 5길 6
월~금 9:00~21:00 /
토 9:00~17: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이번엔 뭐 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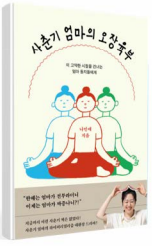
울산 남목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추천 도서

〈너무 늦은 안녕은 없다〉 김하연 저/ 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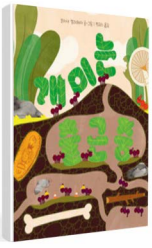
귀신을 볼 수 있는 소년 동찬이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며 성장해 가는 이야기다. 동찬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왔지만, 어느 날 죽은 영심 탐정 사무소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가스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진원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찬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은 진정한 이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특히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 상대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되는 동찬의 변화가 인상적이다.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나민애 저/ 서교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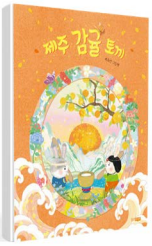
책 저자 나민애 교수는 아이들 이상으로 돌봐야 할 것이 사춘기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같은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이 '아이를 향한 사랑'에서 발현된 감정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두렵지만 우린 잘하고 있다고,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그래도 혼자는 두려우니 우리 손을 맞잡고 함께 이 험한 감정을 잘 다스려보자고 권한다. 감당 안 되는 사춘기 남매와의 에피소드를 격의 없이 솔직하게 풀어낸 저자는, 호쾌한 글로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답답한 속을 뻥 뚫리게 한다.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적극 추천한다.

〈개미는 출근 중〉 모이샤 켈러웨이 저/ 생각곰곰



세상의 개미는 모두 부지런하다. 딱 한 마리만 빼고. 바로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일개미 '미니'다. 모두가 일터로 향하지만 미니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미니는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개미굴 밖 더 넓은 세상으로 모험을 떠난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의 개미들을 만난다. 2m가 넘는 거대한 개미집을 짓는 불개미, 도토리 한 알에 집을 짓는 도토리개미, 거대한 턱으로 나뭇잎을 자르는 일꾼개미, 항생 물질로 상처를 치료하는 마타벨레 개미.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찾아 나선 미니의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제주 감귤 토끼〉 백유연 글그림/ 웅진주니어



예부터 달나라에는 계수나무 아래서 옥토끼가 떡방아를 찧으며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 옥토끼들은 달나라에서 감귤을 키운다. 감귤을 키우는 <제주 감귤 토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아픈 할머니를 위해 매일 밤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한 아이가 있다.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옥토끼들은 신령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령님은 동그랗고 영롱한 노란빛의 감귤을 선물한다. 감귤을 처음 맛본 옥토끼들은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상큼한 맛에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쁨을 느낀다. 이 기쁨을 아이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옥토끼들은 달나라에서 정성껏 감귤나무를 기르고, 어떻게 아이에게 감귤을 전할지 고민한다. 과연, 옥토끼들의 마음이 아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

〈페인트〉 이희영 저/ 창비



아이 낳기를 꺼리는 미래 사회, 국가가 직접 아이들을 키워내는 가상의 양육시설 'NC 센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그곳에서 자란 17세 소년 제누 301은 자신이 평생 함께할 부모를 직접 선택하는 특별한 권한인 '부모 면접'을 치른다. 국가 지원금이나 가식적인 목적을 숨기고 다가오는 수많은 부모 후보자를 매서운 눈으로 걸러내던 제누는, 면접을 거듭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참된 관계란 무엇인지 깊이 사색하기 시작한다. 부모라는 존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관계를 정의해 나가는 청소년의 성장을 깊은 성찰과 여운을 담아 묵직하게 그려냈다.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장소	행사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남목도서관. 책놀이터 북적북적. T:IM(틈) 1219. 작은도서관 4곳	9월 독서의 달	지역주민	9월	매직쇼 및 샌드아트, 북 피크닉, 작가와의 만남,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목도서관. 책놀이터 북적북적. T:IM(틈) 1219. 작은도서관 4곳	문화가 있는 날	지역주민	9월~11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연체 해제, 마지막 주 수요일 대출 2배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마성만화도서관 (남목 일원)	남목도시재생축제	지역주민	10월 9일	'남목에서 놀자' 행사 참여, 북 피크닉 자유 독서 및 창의독후 활동 진행

남목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홈페이지: 울산동구 통합도서관 https://library.donggu.ulsan.kr/

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남목도서관 ☎052-209-4586	맛있는 동화놀이	6~7세	9~11월	동화를 듣고 다양한 놀이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 미술	초등 전학년	9~11월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미술작품으로 표현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	초등 2~4	9~11월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표현력과 사고력 기르기
	놀이랑 과학실험	초등 2~6	9~11월	과학 원리와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과학수업
	한권으로 배우는 세계사	초등 5~6	9~11월	세계사를 통하여 고대 문명과 고대 역사 이해
	탄탄 토요 책방	초등 2~4	9~11월	책 읽기를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 키우기
	AI 인문학	성인	9~11월	내 삶에 바로 쓰는 AI 도구와 판단력 배우기
	나를 확장하는 독서모임	성인	9~11월	책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는 독서 모임
꽃바위작은도서관 ☎052-209-4337	초등 그림책 문해력 교실	초등 1~3	9~12월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교과서 속 과학실험	초등 전학년	9~12월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원리를 익히며 재미있는 과학실험 하기
	도서관 명화 미술놀이	초등 전학년	9월	유명한 명화 그림책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작품으로 재해석 해보기
	동화나라 미술놀이터	6~7세	9~12월	유아 대상 그림책 읽고 관련 미술 활동하기
	한자 급수 6급 도전	초등 2~4	9~12월	한자 6급 급수 자격증 도전
	AI캔바 (3D펜 체험)	초등 2~5	9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바를 활용한 AI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책 보드게임	7세~초3	10~12월	그림책을 읽고 연관된 보드게임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코바늘 뜨개 공방	성인	9~12월	코바늘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소품 나들기
	독서노트 만들기	초등 전학년	9월	책 만들기 기법을 이용하여 독서의 달에 사용할 독서노트 만들기
	걱정인형만들기	초등 전학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겁쟁이 빌리〉 책 읽고 나만의 걱정인형 만들기
마성만화도서관 ☎052-209-3947	초등 한자	초등 1~3	9~12월	초등 기초 한자 배우고 익히기
	온가족 뇌건강 보드게임	성인	9~11월	다양한 보드게임의 방법을 익히고 진행자로서의 역할 배우기
	어반스케치	성인	9~11월	수채화 기초부터 상세히 배워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그림 작품 완성하기
	(중장년)스마트폰 활용 교육	초등	9~11월	중장년 대상 스마트폰 활용 기초부터 고급 기능, 사진 영상 편집 등 교육
전하작은도서관 ☎052-209-3936	너랑 나랑 책놀이	6~7세	9~11월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
	신나는 도서관 놀이터 책읽go! 뛰놀go!	초등 1~3	9~11월	그림책을 읽은 후 의견 발표하고 놀이 활동 참여
	문해력 놀이 팡팡	초등 1~4	9~11월	문맥 파악을 중심으로 어휘력과 문해력 높이기
	생각이 쑥쑥 Creative Reading	초등 1~4	9~11월	주제별 학습 활동을 통한 영어 사고력과 표현력 확장
화정아이꿈누리도서관 ☎052-209-3950	초등 종이접기 자격증반 1~3급	초등 전학년	9월	종이접기 자격증 1~3급 취득 가능 (한국종이접기 협회 교재 사용)
	창의 독서 미술&요리	6세~초등2	9~11월	동화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속 미술&요리 활동
	Beyond the Book: 영어 원서 읽기	초등 5 ~중등 2	10~11월	다양한 영어 원서를 읽으며 비판적 사고력 높이고 토론을 통해 영어 자신감 높이기
	도서관에서 놀자	초등 1~3	10월	다양한 그림책 읽고 즐거운 놀이 활동
책놀이터 북적북적 ☎052-209-4343	알콩달콩 책놀이	6~7세	9~11월	그림책과 다양한 책 놀이 활동
	글쓰기 자신감 키우기 프로젝트	초등 4~6	9~11월	다양한 글쓰기를 배우고 글 힘을 키우는 시간
	꼬물꼬물 댄스 챌린지	6~7세	9~11월	신나는 음악에 율동 배우기
	책하고 연극하자	초등 2~4	9~11월	연극놀이 활동에서 새로운 작품 완성으로 연극 올리기
	말하는 힘! 스피치	초등 1~2	9~11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며 타인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짐
	갈래별 글쓰기	초등 3~6	9~11월	여러 갈래 글쓰기를 통해 갈래별 특성을 이해
T:IM 1219 ☎052-209-3217	꿈을 잇는 틈	중학생	9~11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론 이해 및 실습 활동
	학부모 방문의 날	학부모	9월	시설 안내 및 체험 활동
	틈크닉	12~19세	10월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북 피크닉

꽃바위문화관 공연 안내

구분	공연명	공연일시	내용	관람료	공연단체
기획 공연	드로잉매직쇼 크레용용	10. 10.(토) 오후 3시	드로잉 퍼포먼스와 신나는 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성인 3,000원 청소년 1,000원	극단 용용아저씨
	선풍이의 풍선수레	11. 7.(토) 오후 3시	풍선으로 펼치는 예술과 클래식의 아름다운 하모니 공연	성인 3,000원 청소년 1,000원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상주 단체 공연	고래를 찾아서	10. 31.(토) 오후 3시	사라진 고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을 바탕으로 한 환경 가족 뮤지컬	무료	멀티아이 교육연구소
	냥이의 모험	11. 28.(토) 오후 3시	'우리는 모두 소중하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고양이의 시선을 통해 동구를 담은 뮤지컬	무료	
	황금빛 전율, 빅밴드 100년의 고동!	10. 24.(토) 오후 5시	죽기전에 들어야 할 재즈 명곡 [본(BORN)]	10,000원	모던사운즈 재즈 빅밴드
	울산에서 만나는 브로드웨이, 재즈 쇼타임!!	11. 21.(토) 오후 5시	죽기전에 들어야 할 재즈 명곡 [빛(LIGHT)]	10,000원	
	대륙을 잇는 리듬, 라틴 재즈의 밤	12. 5.(토) 오후 5시	죽기전에 들어야 할 재즈 명곡 [선(LINE)]	10,000원	

문의 | 꽃바위문화관 052)209-4330

청년 프리랜서 창작지원 '로컬메이커랩' 창작자들이 만든 동구 굿즈 선보여

울산 동구가 2026년 청년 프리랜서 창작지원 프로젝트 '로컬메이커랩'의 결과물인 청년 창작자 10명의 동구 굿즈를 선보였다. 7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해온 '로컬메이커랩'에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프리랜서와 예술가 10인이 참여해, 동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을 자신만의 창작 방식으로 해석한 굿즈 상품을 제작했다.

△슬도의 바다와 해녀의 삶을 담은 장신구 △청바지로 만든 방어 '방어JEAN' △남목 마성에서 온 행운의 편자 △동구 해산물 수세미 시리즈 '방어·성게 수세미' 등 동구의 지역 이야기를 개성 있게 풀어낸 다양하고 참신한 굿즈들이 선보였다. 로컬메이커랩 참여 작가들의 시제품은 9월 30일까지 동구청년센터 마을기록관에서 볼 수 있다.

문의 | 동구청년센터 052)209-3485








동구지역 착한가격업소 현황

(2026. 9. 기준)

연번	업 소 명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요메뉴
1	정원분식	한식	052-233-7849	울산 동구 대송11길 14-1(화정동)	보리밥: 4,000원, 국수: 4,000원
2	백옥세탁소	세탁업	052-236-1919	울산 동구 남목12길 36(동부동)	자켓상의: 6,000원, 하의: 4,000원
3	호박터숯불갈비	한식	052-201-4452	울산 동구 문재2길 13(방어동)	생삼겹(국산, 150g): 10,000원, 소갈비살(100g): 8,000원
4	제주식당	한식	052-232-2238	울산 동구 명덕3길 14(서부동)	된장찌개: 7,000원, 김치찌개: 7,000원
5	장수밀면	한식	052-235-0552	울산 동구 명덕4길 6(서부동)	물밀면: 7,500원, 비빔밀면: 8,000원
6	정원식당	한식	052-236-2221	울산 동구 진성14길 77(전하동)	청국장: 7,000원, 고등어정식: 6,000원
7	장수보리밥뷔페	한식	052-252-7269	울산 동구 화진길 9(방어동)	보리밥: 7,000원, 칼국수: 7,000원
8	안 골 목	한식	052-234-3107	울산 동구 남목14길 32(동부동)	보리밥뷔페: 8,000원
9	북 경	중식	052-252-1155	울산 동구 번덕로 31(화정동)	짜장면: 2,000, 짬뽕: 4,000원
10	장터수육	한식	052-232-0541	울산 동구 명덕5길 15(서부동)	국밥: 6,000원, 순대국밥: 7,000원
11	포 맨	이미용업	052-201-0410	울산 동구 옥류로 83(동부동)	커트: 10,000원
12	강원식당	한식	052-236-9403	울산 동구 내진4길 12(방어동)	정식: 7,000원, 된장찌개: 8,000원
13	컷트박스	이미용업	052-235-042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01(일산동)	컷트: 8,000원
14	미소돈참숯불구이	한식	052-201-3855	울산 동구 슬도로 21(방어동)	소고기(미국산 100g): 9,000원, 삼겹살(국내산100g): 7,800원
15	자매국수집	한식	052-234-0912	울산 동구 진성6길 88-12(전하동)	잔치국수: 5,000원, 칼국수: 5,000원
16	얼큰손수제비	한식	052-234-9770	울산 동구 진성14길77(전하동)	칼국수: 6,000원, 수제비: 6,000원
17	정지간 한식뷔페	한식	052-232-2212	울산 동구 대송로 131(화정동)	한식뷔페: 7,000원
18	먹거리	한식	052-234-1058	울산 동구 진성14길 77(전하동)	뼈다귀해장국: 8,000원
19	해 동	중식	052-234-7780	울산 동구 꽃바위로 163(방어동)	짜장면: 2,000원, 짬뽕: 6,000원
20	초당밀면칼국수전문점	한식	052-251-2344	울산 동구 대송11길4(화정동)	밀면: 7,000원, 비빔밀면: 7,000원
21	신토불이 왕족발	한식	052-236-4986	울산 동구 대송1길41(화정동)	돼지국밥: 7,000원, · 순대국밥: 7,000원
22	초원양다리구이	중식	052-234-5798	울산 동구 전하로 27(전하동)	양갈비구이(1kg):46,000원, 통양다리구이(1.8kg): 77,000원
23	착한갈비야	한식	052-201-5292	울산 동구 문재7길12(방어동)	황제소갈비(100g): 8,900원, 삼겹살(100g): 6,900원
24	팥박사(팥사랑단팥빵)	기타요식업	052-233-3323	울산 동구 전하로 46(전하동)	단팥빵: 1,400원, 소보로: 1,400원
25	천 안 문	중식	052-232-2345	울산 동구 화진2길39(방어동)	짜장면: 2,000원, 짬뽕: 3,000원
26	꽃바위약수삼계탕	한식	052-252-5252	울산 동구 화잠5길56(방어동)	삼계탕: 13,000원
27	멋진남자	이미용업	0507-1332-4441	울산 동구 진성6길6(전하동)	커트: 8,000원, 염색: 13,000원
28	금돼지가든	한식	052-911-3392	울산 동구 명덕6길11(서부동)	생삼겹살(100g): 5,300원, 생꽃목살: 5,300원
29	심이네꽁보리밥	한식	052-252-2871	울산 동구 학문로 16(일산동)	김치찌개: 7,000원, 된장찌개: 7,000원
30	순례국밥	한식	052-235-7766	울산 동구 남진길 80-12(방어동)	순례국밥: 8,000원
31	해양식당	한식	052-201-044	울산 동구 화잠9길17(방어동)	라면: 3,000원, 돈까스: 7,000원
32	원베이커리	기타요식업	052-244-6474	울산 동구 진성5길64(전하동)	단팥빵: 1,500원, 통밀식빵: 4,500원
33	일미원	중식	052-251-6787	울산 동구 등대2길 28(방어동)	짜장면: 3,000원, 짬뽕: 4,000원
34	무연식당	한식	052-233-2508	울산 동구 진성5길 48(전하동)	돌솥비빔밥: 6,000원, 떡만두국: 5,000원
35	한마음숯불갈비쌈밥	한식	052-251-3888	울산 동구 바드래2길 6(전하동)	쌈밥: 10,000원, 정식: 8,000원
36	미소식당	한식	052-252-3171	울산 동구 대송7길 51(화정동)	보리밥+국수: 7,000원
37	두꺼비분식	한식		울산 동구 양지5길 63(화정동)	잔치국수: 6,000원, 냉국수: 6,000원
38	착한한끼휴게소	한식	0507-1406-8895	울산 동구 등대로 8-13, 1층	순두부찌개: 6,000원, 김치찌개: 6,000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소식

2026년 교육문화 정기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9. 1.(화) ~ 2026. 11. 30.(월)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모집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모집강좌 : 성인영어(수준별), 아동영어(7~9세),
재봉 왕초보 교실, 재봉 중급교실,
스마트폰 왕초보교실,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상시모집)
수 강 료 : 강좌마다 상이(홈페이지 참고)
문　　의 : 052-236-1465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신청자 모집

진행일정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4:00~16:00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모집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4명
상담내용 : 임차, 채권·채무, 이혼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접수 후 일정 안내)
문　　의 : 052-236-1465

저소득 주민 무료 이미용 서비스 자원 봉사자 모집

모집내용 : 저소득 주민에게 이미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능 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사업일시 : 매주 4주 월요일 09:30~11:30
사업장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 :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 커트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취약계층 및 저소득 지역 주민
(어르신, 장애인 등)
문　　의 : 052-236-1465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소식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공유 라운지 온:담 이용 안내

일시 : 10:00~17:00 (주말, 공휴일 휴관)
장소 : 울산 동구 옥류로 19, 2층
대상 :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당해연도
40세~64세 1인 가구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이용 신청서 등록 후 이용 가능)
내용 : -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
(북카페, 라면공방) 제공
-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타교실, AI교육,
요리교실, 원데이클래스 등)
- 심리지원 및 나눔 창고 운영
문의: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중장년 1인가구 자기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

대상 :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만 4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내용 : - 안심홈세트 지원
(가정용 CCTV 또는 안심 도어락 설치 지원)
- 주거비 지원(월세 및 관리비 체납 지원)
- 노후 가전 제품 지원
(노후된 가전 제품 교체 지원)
문의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유아 교육 문화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일시 : 10월~11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16:00~17:40)
장소: 울산 동구 월봉10길 14,
울산화정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
대상: 동구 내 4~7세 유아 10명
내용: 그림책 독서 및 독후활동 후
쿠킹 클래스 진행
재료비: 장난감도서관 회원-무료 /
비회원-13,000원
문의: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건강증진실 이용 안내

일시: 월~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공휴일 휴관
장소: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건강증진실
(화정주공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 1층)
대상: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이용)
운동기구: 발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롱풀머신,
저소음 런닝머신, 아령 세트 등
문의: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아빠와 함께 숲에서 100배 즐기기

일시: 2026년 10월~11월/월 1회(상세일정 아래내용 참고)
장소: 울산 동구일대
대상: 동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가족 중 아빠와 자녀 45가정 (자녀 : 6세~초등학생)

사업명	일시	내용	장소
슬도에서 미션으로 즐기기	10.10.(토) 10:00~13:00	해안둘레길 산책하며 생태미션 수행하기 맛있는 도시락 먹기	슬도아트 옆 광장 (동구 성끝길103)
봉대산에서 열매로 즐기기	11.21.(토) 10:00~13:00	봉대산 숲 오르며 생태체험하기 맛있는 도시락 먹기	남목생활공원 (동구 동부동163)

수강료 : 전액 무료
문의: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선착순 접수/중복 신청 불가)

우리 동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대왕암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봄·여름·가을·겨울, 1년에 4번 대왕암 소식지가 발간됩니다. 울산 동구의 구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미담을 담은 대왕암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happynews@korea.kr) 또는
울산동구 홈페이지 (동구소식→대왕암소식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받습니다.

문의 : 울산시 동구청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팀 052) 209-3048



대왕암소식지 독자이벤트

울산 동구에서는 유일한 헌혈의 집인 '00의 0 0000000' 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제3 대학관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혈의 집 울산과학대센터'는 9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주소와 성명을 꼭 기재해 주세요.
(※ 주소와 이름 없이 보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2026년 겨울호에 발표됩니다.

보낼 곳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3층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팀 대왕암소식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44021)
이메일 : happynews@korea.kr
문의 : 울산 동구청 미디어홍보팀 052) 209-3048

2026년 여름호 독자이벤트 정답은 '**틈 1219**'입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자

강정아 권분석 김기갑 김영재 김희순
민혜정 박소은 박종화 백철호 성형진
양준희 유소의 이성훈 이수진 이지아
전미선 정은경 조은숙 최재철 황은화







글 **김명지** | 사진 **이쌍식** 명예 사진기자

바다를 향해, 한걸음 더

일산항 방파제는
외항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길게 뻗은 선착장은
내항에서 떠돌던 어선을 품는다.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끝 연결교량은
어선과 바다와 사람을 잇는다.

일상의 공간으로 다가와
그래서 더 가까워진 울산 동구 일산항.



※ 울산 동구는 일산항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해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앞 일산항 방파제 안쪽으로 선착장(길이 80m, 폭 10m)과 육상에서 선착장으로 가는 연결교량(길이 76.5m, 폭 8~10.5m)을 조성했다.